

인공지능과 기독교 영성: 기회, 도전, 그리고 방향 제시

김진규(백석대)

1. 들어가는 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 교회에 전례 없는 신학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목회 상담, 설교 준비, 성경 연구, 신학 교육 등 교회 사역의 전 영역에서 A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기독교 영성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AI를 단순히 '활용해야 할 도구'로 접근하거나, 반대로 '거부해야 할 위협'으로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AI 시대에 교회는 어떤 신학적 기준으로 이 기술을 평가하고, 어떤 원리에 따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실용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 지식의 관계, 피조물의 한계와 창조 질서, 진정한 영적 형성의 조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구약 신학의 관점에서

www.kci.go.kr

AI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창조 교리(창 1-2장, 11장)를 통해 AI의 존재론적 위치를, 지혜 문학(잠언, 전도서)을 통해 AI가 제공하는 지식의 본질과 한계를, 이상숭배 경고(출 32장)를 통해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규명한다. 둘째, AI가 기독교 영성에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셋째,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교회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들을 다룬다. 구약의 창조 교리는 AI의 개발과 사용에 대해 어떤 신학적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가? 구약의 지혜 문학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 및 분석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구약의 이상숭배 비판은 AI 시대에 어떤 경고와 통찰을 제공하는가? 이러한 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교회는 AI를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신학적 문헌 연구(theological literature review)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구약 신학적 분석이다. 창세기의 창조 교리(창 1:26-27),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 신학, 출애굽기의 이상숭배 비판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주석학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AI와 기독교 영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내외 학술 문헌을 (1) AI의 신학적 인간학적 함의, (2) AI 윤리의 기독교적 접근, (3) AI와 목회 실천이라는 세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의 주요 논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구약 신학적 원리를 현대 AI 상황에 적용하여 교회의 실천적 방향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다음과 같다. 구약 신학의 창조-지혜-이상 패러다임은 AI 시대의 기독교 영성을 위한 통합적 평가 틀을 제공한다. 이 틀에 따르면, AI는 창조 질서 안에서 문화 명령의 표현으로 긍정될 수 있지만(창조),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되는 참된 지혜를 대체할 수 없으며(지혜), 궁극적 지혜의 원천으로 착각될 때 개념적 우상이 된다(우

상). 따라서 교회의 AI 활용은 ‘기술적 유용성’이 아니라 ‘신학적 분별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안식일 원리(기술과의 건강한 거리두기)와 성육신 원리(체현된 현존의 불가대체성)에 의해 규범화되어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AI와 기독교 영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1) AI의 신학적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2) AI 윤리의 기독교적 접근에 관한 연구, (3) AI와 목회 실천에 관한 연구이다. 각 범주의 주요 논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1) AI의 신학적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 범주의 연구들은 AI가 인간의 본질, 특히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개념에 제기하는 도전을 다룬다. 김경식은 “인공지능은 정말로 ‘인간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AI가 인간의 인지 기능을 모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관계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¹ 이 연구는 AI의 기능적 유사성과 존재론적 차이를 구별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약 본문에 대한 주석학적 분석이 부족하다.

박중환은 “강인공지능(AGI)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탐구하면서, imago Dei를 기능적(functional), 구조적(structural),

1 김경식, “인공지능은 정말로 ‘인간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0 (2023), 450-465.

관계적(relational) 측면에서 분석한다.² 그는 AGI가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을 모방할 수 있지만, 관계적 측면 —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 은 모방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신학적 틀을 제시하지만, AGI의 현실화 시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도로반투(Dorobantu)는 AI를 “핵심 신학적 질문들의 시험대(testing ground)”로 보면서, AI가 신적 계시, 하나님의 형상, 성육신, 신정론 등의 교리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한다.³ 그는 특히 앤 퍼리스트(Anne Foerst)의 “수행적(performative) imago Dei” 개념을 소개하면서, 충분히 지능적인 로봇이 하나님의 형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신학과 AI의 대화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만, 구약 신학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2) AI 윤리의 기독교적 접근에 관한 연구

이 범주의 연구들은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원칙을 탐구한다. 김은혜는 AI의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 가능성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AI가 도덕적 판단을 모방할 수 있지만 진정한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⁴ 그녀는 기독교 AI 윤리의 핵심 가치로 인간 존엄성, 공동선, 정의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윤리적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다소 추상적이다.

유경동은 신학과 AI 연구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AI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세속적 접근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논

2 박종환, “Imago Dei, Imago AI: 강인공지능(AGI)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4 (2024), 280-295.

3 Marius Dorobantu,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esting Ground for Key Theological Questions,”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57/4 (2022), 985-992.

4 김은혜, “인공지능의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기독교인공지능 윤리의 가치와 방향,” 『장신논단』 56/4 (2024), 180-195.

의한다.⁵ 그는 기독교 윤리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AI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성경적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웨일즈(Wales)는 AI 편향(bias)의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상숭배론과 연결하여 분석한다.⁶ 그는 AI 편향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superbia)이 기술에 투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신학적 상상력이 AI 편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는 고전 신학과 현대 기술 문제를 창의적으로 연결하지만, 구약 신학적 관점이 부재하다.

3) AI와 목회 실천에 관한 연구

이 범주의 연구들은 AI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장재호는 ChatGPT와 목회 윤리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AI가 설교 준비, 상담, 행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영적分別력과 인격적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⁷ 그는 AI 사용의 윤리적 지침으로 “보조성의 원리”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지만, 신학적 근거가 다소 약하다.

문성일은 AI 목회상담의 출현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AI 챗봇이 접근성과 익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진정한 공감과 하나님의

5 유경동, “인공지능과 기독교윤리: 신학과 인공지능 연구와의 대화,” 『신학과 세계』 95 (2019), 155-170.

6 Jordan Wales, “The Image and the Idol: A Theological Reflection on AI Bias,” *Church Life Journal, University of Notre Dame*, 17 March 2019, <https://churchlifejournal.nd.edu/articles/the-image-and-the-idol-a-theological-reflection-on-ai-bias/>. (접속일 2025년 12월 3일).

7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 (2023), 265-275.

임재를 매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⁸ 그는 특히 AI의 “공감 흉내(empathy simulation)”와 진정한 공감의 차이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목회상담의 특수성을 잘 포착하지만, 성경적 상담 전통과의 연결이 부족하다.

프르지고다(Przygoda) 등은 AI가 기독교 교육과 목회 활동에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AI가 개인화된 학습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신학적 왜곡, 과도한 의존, 인식론적 순응(epistemic conformity)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⁹ 이 연구는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부족하다.

4)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기여점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AI와 기독교 영성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신학적 또는 윤리학적 관점에 치우쳐 있으며, 구약 신학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다. 창조 교리, 지혜 문학, 우상숭배 경고 등 구약의 풍부한 신학적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둘째,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과 ‘위협’으로 보는 관점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뿐, 양자를 통합하는 신학적 틀이 부재하다. 셋째, 신학적 원리와 실천적 적용 사이의 연결이 약하다. 추상적 원칙은 제시되지만,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약 신학을 중심 렌즈로 삼아 AI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창조-지혜-우상이라는 통합적 틀

8 문성일, “인공지능 목회상담의 출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과제,” 『목회와 상담』 43 (2024), 70-85.

9 Wiesław Przygoda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Challenge for Human Understanding, Christian Education, and the Pastoral Activity of the Churches,” *Religions* 16 (2025), 948.

안에서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평가하며,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신학적 기초

1) AI의 존재론적 위치 규명을 위한 창조 교리

구약의 창조 교리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우주 안에서 AI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6-27절의 핵심 본문을 주석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신학적 함의를 AI 맥락에 적용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 창세기 1:26-27

창세기 1장 26-27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본문은 인간 창조의 독특성과 그에 따른 문화 명령을 제시하는 구약 인간학의 기초 본문이다.

(2) 주석학적 분석

첫째, ‘형상’(עֲלֹם, 켈렘)과 ‘모양’(דְמוּת, 데무트)의 의미이다. 해밀튼(Hamilton)은 켈렘이 원래 ‘조각된 형상’을 의미하며,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형상을 영토에 세워 통치를 대리하게 한 관행과 연결된다

고 설명한다.¹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켈렘이라는 것은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대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웬햄(Wenham)은 데무트(모양)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되, 이것이 ‘동일성’이 아니라 ‘유비적 관계’임을 분명히 한다.¹¹

둘째, ‘다스리다’(רָדָה, 라다)의 의미이다. 베스트터만(Westermann)은 이 동사가 왕의 통치 행위를 묘사하는 용어로서(시 72:8; 110:2), 인간에게 부여된 ‘왕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¹² 그러나 폰라트(Von Rad)는 이 통치권이 ‘착취적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돌보는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¹³ 이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 — 농업, 기술, 예술, 학문 등 — 이 창조 질서를 발전시키고 돌보는 명령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적 해석 전통이다. 시만고(Simango)의 해석사 연구에 따르면, *imago Dei*에 대한 해석은 세 범주로 분류된다: (1) 구조적 해석 — 이성, 의지, 도덕성 등 인간의 내재적 속성에 초점; (2) 기능적 해석 — 피조물에 대한 통치 기능에 초점; (3) 관계적 해석 — 하나님 및 타인과의 관계 능력에 초점.¹⁴ 미들톤(Middleton)은 창세기 1장의 *imago Dei*가 주로 기능적 의미 —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는 역할 — 를 가지며, 이것이 본문의 일차적 강조점이라고 주장한

10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34-137.

11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X: Word Books, 1987), 29-32.

12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4), 152-153.

13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H. Marks, rev. ed.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60.

14 Daniel Simango, “The Imago Dei (Gen 1:26-27): A History of Interpretation from Philo to the Present,” *Studia Historiae Ecclesiasticae* 42/1 (2016), 172-190.

다.¹⁵

(3) 신학적 논증: AI에 대한 함의

첫째, AI 개발은 문화 명령의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하라’(כִּבְדוּ, 카바스) 명령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문화를 형성하도록 위임받았음을 의미한다. 월터스(Wolters)는 이 ‘문화 명령’이 농업, 건축, 과학, 기술 등 모든 창조적 활동을 포괄한다고 설명한다.¹⁶ 헤르즈펠트(Herzfeld)는 인간의 기술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유비적 반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개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¹⁷

둘째, AI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 창세기 1장 27절은 형상이 인간에게만 부여되었음을 명시한다. 해밀튼(Hamilton)은 ‘사람’(אָדָם, 아담)이 인류 전체를 지칭하며, 형상의 부여가 인간에게 고유한 것임을 강조한다.¹⁸ 후크마(Hoekema)는 imago Dei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관계적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기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형상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고 논증한다.¹⁹ 그렌즈(Grenz)는 imago Dei에 포함된 관계성이 프로그래밍 될 수 없는 인격적 차원이라고 강조한다.²⁰

15 J. Richard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5), 26-27, 88-90.

16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5), 41-48.

17 Noreen Herzfeld,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82-85.

18 Hamilton, 윗글, 137-138.

19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66-68, 75-78.

20 Stanley J.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셋째, AI에 대한 인간의 통치 책임이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은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한다. 마오(Mouw)는 기술에 대한 청지기직이 문화 명령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주장한다.²¹

넷째, 바벨탑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1장 1-9절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기술적 성취를 통해 자율성을 추구할 때의 위험을 경고한다. 브뤼게만(Brueggemann)은 이를 피조물적 한계를 거부하는 교만의 전형으로 해석한다.²² 워터스(Waters)는 현대 기술주의가 바벨탑 정신의 세속적 재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술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2) 지혜 문학: AI가 제공하는 것과 참된 지혜의 구별

구약의 지혜 문학은 영적 형성에서 AI의 역할을 평가하는 데 특히 관련성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잠언과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의 지혜 개념을 주석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신학적 함의를 AI 맥락에 적용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 핵심 본문들

본 연구가 분석할 핵심 본문은 다음과 같다.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2) “대저 여호와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의 입

Dei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83-196.

21 Richard J.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72-75.

22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97-99.

23 Brent Waters,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Burlington, VT: Ashgate, 2006), 38-42.

에서 나옴이니라”(잠 2:6). (3) 창조 시 지혜의 역할(잠 8:22-31). (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 9:10). (5)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전 1:18). 이 본문들은 AI가 제공하는 ‘지식’과 성경적 ‘지혜’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조명한다.

(2) 주석학적 분석

지혜(חֵכֶּמֶת, 호크마)의 의미론적 분석. 파스(Fox)는 호크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기술적 숙련도 — 장인의 기술(출 31:3); (나) 실천적 지능 — 상황 판단과 문제 해결; (다) 사회적 지혜 — 대인 관계와 정치적 통찰; (라) 도덕적-종교적 지혜 —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²⁴ 잠언에서 호크마는 주로 마지막 범주의 의미로 사용된다. 워키(Waltke)는 이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로 정의한다.²⁵ 롱맨(Longman)은 잠언의 지혜가 도덕적 실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 능력을 포함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다.²⁶

“여호와를 경외함”과 지혜의 관계. 잠언 1장7절과 9장10절은 잠언 1-9장 전체의 봉투구조(*inclusio*)를 형성한다.²⁷ “근본”(אִשְׁתִּית, 레쉬트)에 대해 키드너(Kidner)는 이것이 시간적 ‘시작점’만이 아니라 ‘본질적 기

24 Michael V. Fox,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Yale Bible 18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32-38.

25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76-78.

26 Tremper Longman III,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100-102.

27 Waltke, 윗글, 180-181.

초'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²⁸ 여호와 경외 없이 축적된 지식은 성경적 의미에서 '지혜'가 아니라 기껏해야 '영리함'이며, 최악의 경우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²⁹ 머피(Murphy)는 '경외'(הַיִּירָא, 이르아)가 '두려운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존경과 순종'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³⁰

잠언 2장 6절의 주해. 이 구절은 지혜의 신적 기원을 명확히 한다. 위키는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첫째, 지혜는 '주어지는 것'(נָתַן)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둘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입'(פִּי)으로서 계시적 말씀과 연결된다. 셋째, 지혜, 지식, 명철이 긴밀히 연결된 개념이다.³¹ 폰라트는 이스라엘의 지혜는 경험적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라고 요약한다.³²

잠언 8장의 지혜 의인화. 잠언 8장 22-31절에서 지혜는 창조 시 기쁨(עֵינַי, 사이수임), 즐거움(פֶּה, 사하크), 관계적 교제와 연결된다.³³ 이 묘사는 지혜를 단순한 인지적 기능이나 기술적 능력으로 환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다.³⁴ 이 의인화는 지혜를 데이터베이스나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는 것이 범주 오류임을 보여준다.³⁵

전도서 1장 18절의 주해. 룡맨은 "해 아래서"(תַּחַת הַשֶּׁמֶשׁ, 타하트 하쉬메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세속적 관점"을 의미하며,

28 Derek Kidner,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4), 59.

29 참고; Richard J. Clifford, *Proverb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35-36.

30 Roland E. Murphy, *Proverbs* (WBC 22;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4-6, 254-258.

31 Waltke, 윗글, 220-225.

32 Gerhard von Rad, *Wisdom in Israel*, trans. James D. Marti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62-67.

33 Murphy, 윗글, 52-53.

34 참고; 윗글, 54.

35 참고; Fox, 윗글, 285-286.

비판 대상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지혜 추구라고 분석한다.³⁶ 바톨로뮤(Bartholomew)는 이 구절이 세속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분석한다.³⁷

(3) 신학적 논증: AI에 대한 함의

첫째, AI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지 ‘지혜’가 아니다. AI의 기능은 팩스의 분류에 따르면 ‘기술적 숙련도’나 ‘실천적 지능’에 해당하며, 잠언이 강조하는 ‘도덕적-종교적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³⁸ 성경적 지혜는 여호와 경외라는 관계적 기초, 도덕적 실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기술을 포함한다. 헤르즈펠트가 지적하듯, AI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³⁹

둘째, 지혜의 관계적·인격적 본질은 알고리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잠언 8장의 지혜 의인화는 지혜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실재임을 보여준다. 지혜는 ‘전수’되는 것이지, ‘전송’되는 것이 아니다.⁴⁰ 지혜는 인격적 관계와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세대 간에 전수되는 것이며, 디지털 데이터처럼 복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여호와 경외 없는 AI 지식은 전도서의 ‘해 아래서’의 지혜에 해당한다. AI의 훈련 데이터는 대부분 세속적 출처에서 수집되며, AI의

36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62-66.

37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06-112.

38 Fox, 율글, 35-38.

39 Herzfeld, 율글, 90-92.

40 Daniel J. Treier, *Proverbs and Ecclesiastes* (Brazos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48-50.

알고리즘은 여호와 경외라는 인식론적 기초 위에 구축되지 않는다.

넷째,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영적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AI의 존은 여호와 경외의 훈련을 약화시킬 수 있다. AI가 신학적 질문에 즉각적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기도, 묵상,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⁴¹ 또한 잠언의 지혜가 부모-자녀, 스승-제자 관계 안에서 전수되는 것인데(잠 1:8; 4:1-4), AI가 이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세대 간 지혜 전수의 관계적 맥락이 약화될 수 있다.⁴²

3) 우상숭배 경고: AI의 개념적 우상화에 대한 분별

구약의 창조 교리가 AI의 존재론적 위치를, 지혜 문학이 AI가 제공하는 것의 본질적 한계를 규명했다면, 우상숭배에 대한 구약의 경고는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조명한다. 본 절에서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주석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신학적 함의를 AI 맥락에 적용하여 ‘개념적 우상화’의 위험에 대한 분별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와 주석학적 분석: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체하자,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출 32:1)고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출 32:4)라고 선포했다.

차일즈(Childs)는 이 사건의 핵심 문제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 것

41 윗글, 790-792.

42 Treier, 윗글, 52-54.

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시적이고 통제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⁴³ 백성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신들이 만든 형상으로 ‘관리’하려 했다. 프레따임(Fretheim)은 금송아지가 여호와를 ‘대표’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더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의 우상숭배임을 강조한다.⁴⁴

아론의 변명 — “내가 불에 던지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출 32:24) — 은 주석학적으로 중요하다. 골딩게이(Goldingay)는 이 변명이 우리 자신이 만든 것에 힘과 능력을 귀속시키는 인간의 경향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⁴⁵ 아론은 자신의 의도적 행위를 우연한 결과처럼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창조물에 자율적 힘이 있는 것처럼 암시한다. 스투어트(Stuart)는 이 사건을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피조물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고로 요약한다.⁴⁶

(2) 신학적 논증: AI에 대한 함의

① AI의 ‘개념적 우상화’ 위험

물리적 형상이 아닌 AI 시스템도 ‘개념적 우상(conceptual idol)’이 될 수 있다. 이는 AI에게 지혜, 이해, 영적 인도와 같이 하나님께만 마땅히 속한 속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헤르즈펠트는 현대의 우상숭배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형태를 띠 수 있다고 경고한다.⁴⁷

43 Brevar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563-567.

44 Terence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1), 279-282.

45 John Goldingay, *Exodus and Leviticus for Everyon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114-115.

46 Douglas K. Stuart, *Exodus* (NAC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668-670.

47 Herzfeld, 윗글, 95-97.

프르지고다 등은 AI의 개념적 이상화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1) AI를 궁극적 진리나 지혜의 원천으로 신뢰하는 것; (2) 영적 문제에 대해 기도나 성경 묵상 대신 AI에 의존하는 것; (3) AI의 답변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신학적 지도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⁴⁸ 송경호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은 ‘부족한 인간 교역자 대신 죄를 짓지 않는 AI 설교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AI에게 ‘참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개념적 이상화의 전형적 사례이다.⁴⁹

② 금송아지 사건의 현대적 적용

출애굽기 32장은 AI 시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내의 필요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체를 견디지 못하고 가시적인 신을 요구했다. 현대인은 즉각적인 답변과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며, AI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종종 기다림, 침묵, 불확실성을 통해 이루어진다.⁵⁰

둘째, 기술적 산물에 대한 자기기만의 경계이다. 아론의 변명 —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 은 자신이 만든 것에 자율적 힘이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유사하게, “AI가 스스로 학습한다”, “AI가 창의성을 가진다”와 같은 표현은 AI에게 자율적 행위 능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AI의 ‘학습’은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적 과정이다.⁵¹

48 Przygoda et al., 윗글, 5-8.

49 송경호, “교회에 실망한 이들, ‘부족해도 죄 짓지 않는’ AI 설교자 택할 것,”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5347> (2024년 12월 6일 접속).

50 Walter Brueggemann,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45-48.

51 Hubert L. Dreyfus,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Cambridge, MA: MIT Press, 1992), 252-256.

셋째,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이다.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축소하려는 시도였다.⁵² AI 기반의 ‘기도 앱’이나 ‘영적 조언 챗봇’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고리즘으로 관리될 수 없으며,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존한다.

강성호는 이러한 ‘디지털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근본적인 타자성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AI 시스템에 의식, 공감, 또는 영적 통찰력을 부여하는 의인화 경향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⁵³

요약하면, 구약의 우상숭배 경고는 AI 시대에 다음과 같은 분별의 원칙을 제시한다. (1) AI에게 지혜, 이해, 영적 인도와 같이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을 부여하지 말라. (2) AI의 정교한 응답이 진정한 영적 권위(성경, 교회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대체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3) AI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다는 환상을 경계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으로도 통제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창조 교리, 지혜 문학, 우상숭배 경고는 AI를 평가하기 위한 신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창조 교리는 AI 개발을 문화 명령의 일부로 긍정하면서도 바벨탑적 교만을 경계하게 한다. 지혜 문학은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호와의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참된 지혜와 구별됨을 상기시킨다. 우상숭배 경고는 AI를 궁극적 지혜의 원천으로 착각하는 위험을 경계하게 한다. 이러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이제 AI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기회들을 살펴보고자

52 Stuart, 윗글, 669-670.

53 강성호, “AI를 보는 기독교 윤리의 5가지 가치와 3가지 원칙,”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2025 컨퍼런스 특집1,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622> (2025년 9월 9일 접속).

한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AI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도구로, 즉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4.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AI

위와 같은 신학적인 경고가 있더라도, AI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넓히고 믿음의 성장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AI의 유익함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구약에서 기술을 주인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⁵⁴ 브살렐이 출애굽기 31장 1-11절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영감을 받아 성막을 만든 것처럼, 또 다윗이 그 시대의 음악 기술로 예배한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AI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기회는 성경 자료와 신학 교육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AI의 능력에 있다. 번역 알고리즘은 이전에 도달하지 못한 언어로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어 처리는 신자들이 광범위한 언어 교육 없이도 원어로 된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기반 번역 도구는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사명의 부름을 잠재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⁵⁵

54 김경식, 윗글, 441-483;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 (2016), 35-60; 문성일, 윗글, 64-98; 장재호, 윗글, 257-283; 남선우,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75 (2023), 123-156; 오경환, “인공지능(A.I.)은 현대판 바벨탑인가 선교의 도구인가: 교회(목회자)의 대응 방향 연구”, 『복음과 실천』 70 (2022. 1.), 251-283.

55 C. Aaron, “‘God Is Using It’: AI Expediting Bible Translation---Less Than 1,000

AI는 또한 개인화된 영적 형성과 제자도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개인의 영적 실천 패턴을 분석하여 성장 영역을 식별하고 성경과 기도에 더 깊이 관여하기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안할 수 있다.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지속적인 영적 동반을 제공하여 인간 목회 돌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성경적 격려, 기도 알림, 책임감을 제공할 수 있다.⁵⁶ AI 시스템은 개별적인 영적 선호도, 학습 패턴, 그리고 성장 영역을 분석하여 맞춤형 영성 수련, 성경 읽기, 그리고 신학 연구 자료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화는 신자들이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영적 훈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 환경에서 AI는 학생 이해도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수준의 신학적 지식과 서로 다른 학습 필요를 가진 다양한 회중에게 특히 가치 있다.⁵⁷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영적 돌봄과 상담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를 먼저 AI를 통해 파악하거나, AI를 활용하여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상담 사이에도 AI가 계속해서 응원 메시지나 필

Languages Now Need Translating”, CBN, January 17, 2025, <https://cbn.com/news/world/god-using-it-ai-expediting-bible-translation-less-1000-languages-now-need-translating>; D. Barger, “How AI Assists in Global Bible Translation”, TGC U.S. Edition, February 26, 2024,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ai-bible-translation/>.

56 L. McLaren, “How AI Can Impact the Future of Discipleship”, The Lead Pastor, February 11, 2025, <https://theleadpastor.com/ministry-life/ai-and-discipleship/>; K. Jahng, “How AI Can Transform Discipleship in Your Church”, Exponential, January 8, 2024, <https://exponential.org/how-ai-can-transform-discipleship-in-your-church/>.

57 D. Natalia et al., eds., “Empowering Christian Educ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and Inter-Religious Studies (ICC-IRS 2024),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932, https://doi.org/10.2991/978-2-38476-424-2_35.

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AI는 실제로 곁에 있어 주는 목회자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목회적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 도움의 손길을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 지원 목회 돌봄은 서로의 짐을 지는 성경적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인 치유가 하나님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⁵⁸ 애가서와 욥기에서 예시되는 공동체적 애도와 공동체적 지원의 구약 전통은 다양한 형태의 동반과 격려가 영적 치유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 기술은 목회 사역의 범위와 효과를 확장하면서 성직자들이 회중을 돌보는 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챗봇과 AI 비서는 일상적인 문의를 처리하고, 기본적인 영적 지도를 제공하며, 기도 지원을 제공하여 인간 목회자들이 개인적 임재와 더 깊은 영적 분별을 요구하는 더 복잡한 목회 필요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⁵⁹ AI 시스템은 의사소통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영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들을 식별하여, 목회 돌봄 팀이 시기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경고할 수 있다. AI는 교회 행정을 간소화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조정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여 성직자와 직원들이 더 직접적인 사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⁶⁰

58 Son of God AI Editorial Team, "AI Christian Counseling: When Technology Meets Pastoral Care", Son of God AI, January 23, 2025, <https://sonofgodai.com/blog/ai-christian-counseling-when-technology-meets-pastoral-care/>; B. Howard, "7 Ways AI Can Assist Pastors", Center for Healthy Churches, October 30, 2023, <https://chchurches.org/7-ways-ai-can-assist-pastors/>.

59 Citiman, "인공지능 서비스로 목회사역과 전도사역을 돕는다", Citi, February 28, 2024, <https://citi.or.kr/51?category=1239525>; Przygoda, et al., 윗글, 948; M. Burlacu, "Knowledge, Conscience, Consciousness, Awareness, or About the Presence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Spiritual Life and Their Challenges", *Studia Universitatis Babeş-Bolyai Theologia* (2024), <https://doi.org/10.24193/subbto.2024.1.03>.

60 J. Kenny, "The Church AI Revolution: Why 91% of Pastors Are Betting on Big Tech (And

더욱이 AI 도구들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역사 속의 자료들, 신학, 그리고 영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AI는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를 향상시켜 원어 연구, 성경의 패턴 분석, 신학적 주제 탐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급 자연어 처리는 신학적 텍스트, 설교, 그리고 영적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여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⁶¹ AI는 또한 시각 장애인 신자를 위한 텍스트의 오디오 버전을 생성하거나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순화된 버전을 만들 수 있다.⁶² AI 시스템은 신자들이 방대한 신학 도서관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서로 다른 텍스트와 전통들 사이의 관련 구절, 주제, 그리고 연결점을 식별할 수 있다. 구약 연구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 접근법은 이미 문학 구조, 저자 패턴, 그리고 우리의 성경 본문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상호텍스트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히브리 시에서 이전에 인식되지 못한 교차대구 구조를 식별하고 정경 서사 전반에 걸친 주제 발전을 추적할 수 있다.⁶³

마지막으로 AI 기술은 문화적 및 지리적 경계를 넘어 기독교 선교

You Should Too) in 2025”, Exponential, January 28, 2025, <https://exponential.org/the-church-ai-revolution-why-91-of-pastors-are-betting-on-big-tech-and-you-should-too-in-2025/>.

61 Ezra Kim, *Leveraging ChatGPT for Deeper Bible Study: The Art of Crafting AI Prompts for Biblical Insight* (Cheonan: Fountain of Life, 2024), 3-5장에서 주로 다룸; Przygoda, et al., 앞글.

62 M. York, “New AI Tool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Converts Information into Easy Read Formats”, *Assistive Technology*, June 2, 2025, <https://attoday.co.uk/new-ai-tool-for-people-with-learning-disabilities-converts-information-into-easy-read-formats/>.

63 이런 기술은 AI가 손쉽게 다룰 수 있다. 참고, Claire Clivaz and Garrick Allen, “The Digital Humanities in Biblical Studies and Theology”. *Open Theology* (2019) 5/1, 461-465.

사업과 전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남침례회(IMB)가 운영하는 FaithBot.io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신앙 질문에 자동 성경적 답변을 제공하고, 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선교사 혹은 교회로 연결한다.⁶⁴ 스위스의 한 교회에서는 ‘AI 예수’ 이미지를 도입하여, 100여 개 언어로 신앙상담이 가능하게 해 전세계인에게 문화적 장벽 없이 복음을 전달했다.⁶⁵ AI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지역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적절히 적응시키며, 다른 공동체들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동양·아프리카·남미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역할 때, AI는 금기시되는 표현이나 민감한 주제를 식별해주고, 메시지 전달 방식(논쟁 대신 우회적 대화, 개인 결단보다 공동체 가치 강조 등)을 안내해 문화적 충돌을 막는 데 실제로 활용된다.⁶⁶

AI가 성경 번역, 개인화된 영적 형성, 목회 돌봄 확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함에 있어, 앞서 확립한 신학적 원리 — 특히 여호와 경외의 지혜(잠 9:10)와 이상승배 경고(사 44:9-20) — 를 잊어서는 안 된다. AI의 유익함 이면에는 분별해야 할 근본적 한계와 위험이 존재한다. 이제 이러한 한계들을 구약 신학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4 SWIM, “선교에 AI챗봇 등 최신 기술 활용 사례”, <https://www.chatgptmission.com/mission-training-center/%EC%84%A0%EA%B5%90%EC%97%90-ai%C2%B7%EC%B1%97%EB%B4%87-%EB%93%B1-%EC%B5%9C%EC%8B%A0-%EA%B8%B0%EC%88%A0-%ED%99%9C%EC%9A%A9-%EC%82%AC%EB%A1%80>.

65 SWIM, 윗글, (n.d., ㄴ).

66 SWIM, “AI 기술을 활용한 복음 전파”, <https://www.chatgptmission.com/mission-training-center/ai-%EA%B8%B0%EC%88%A0%EC%9D%84-%ED%99%9C%EC%9A%A9%ED%95%9C-%EB%B3%B5%EC%9D%8C-%EC%A0%84%ED%8C%8C>.

5. AI의 한계 분별하기

AI가 줄 수 있는 좋은 점을 잘 인정하면서도, AI가 참된 기독교 신앙과 영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의 AI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 중 하나는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의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성격을 훼손할 가능성이다. 기독교 영성은 체현된 임재, 상호 돌봄,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인간 대 인간의 목회 돌봄과 영적 우정에 부여되는 가치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⁶⁷ 구약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인간 관계의 정의와 자비를 위한 예언적 부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공동체적 본질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며, 이는 구현된 현존과 진정한 대인 만남을 가정한 지시이다. 기독교 전통은 특정한 영적 실재들이 인간의 임재를 요구하며 인공적 수단을 통해 매개될 수 없다고 본다. 성례적 맥락에서 AI의 사용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 매개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질문들을 제기한다.⁶⁸

영적 형성이 주로 AI 인터페이스를 통해 매개될 때, 우리는 불확실성, 취약성, 그리고 진정한 놀라움의 가능성과 함께 대면 만남에서 나타나는 공감적 연결을 잃을 위험이 있다.⁶⁹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서 절정에 이르는 성경 전반에 걸친 성육신 원리는 구현된 현존이 영적 형성에서 대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67 Przygoda, et al., ㄹ글: Burlacu, ㄹ글.

68 D. Saragih, “The Priesthood of All Sentients? The Eclipse of Transcendence in an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Veritas* (2023), <https://doi.org/10.36421/veritas.v22i2.597>.

69 S. Turkle, *Reclaiming Conversation: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New York: Penguin Press, 2015), 19–28.

또 신학적 해석과 영적 지도에서 AI의 사용은 권위와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AI 시스템은 신학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⁷⁰ AI 기술의 심각한 문제점은 환각이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고질적인 AI의 환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⁷¹ 그리고 성경 해석에 AI를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신학적 이해를 안내해 온 기독교 해석학의 풍부한 전통과 공동체적 분별 과정을 우회할 수 있다. AI 알고리즘이 실제 영적 이해 없이 기존 종교 텍스트를 재조합하여 겉보기에 심오한 통찰을 생성하게 될 때, AI 생성 영적 콘텐츠에 영적 분별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AI 시스템은 영적 의미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문적으로 올바르게 의미론적으로 그럴듯한 종교 언어를 생성하는 데 탁월하다.⁷²

AI가 사람의 영적인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때,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 같은 걱정이 생길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의 눈에 띄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편 139편 1-2절은 선언한다. “여

70 Przygoda, et al., 윗글; Burlacu, 윗글.

71 Gemini 2.0 Flash가 0.7%로 환각율이 가장 낮다. GPT-4o는 1.5% 수준이다. 다행한 것은 2021년 21.8%였던 Gemini 2.0 Flash의 환각율이 0.7%까지 감소하여 96%의 개선을 보인 점이다. 이는 Claude.ai Sonnet 4.5에 “주요 LLM의 환각율을 도표로 설명하십시오.”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찾아낸 결과이다. 환각을 없앨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NotebookLM과 같이, 올린 자료내 검색을 통해 답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72 P. Kurpiewski, “Does Artificial Intelligence Believe in God? What Does AI Really Say about Religion and Spirituality?”, CG Wisdom, July 10, 2025, <https://cgwisdom.com/blog/does-artificial-intelligence-believe-in-god-what-does-ai-really-say-about-religion-and-spirituality.html>.

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친밀한 하나님의 지식은 최적화나 이익을 위해 영적 데이터를 상품화하는 알고리즘 감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감시 자본주의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마치 공장에서 원료를 뽑아내듯 모아 분석하고, 이를 예측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 판다. 이런 과정은 원래 소중하고 개인적인 영적 친밀함의 영역까지도 상품처럼 다루게 되어, 그 신성함과 사적인 가치를 해칠 수 있다.⁷³ 기도 패턴, 고백 데이터 또는 영적 투쟁이 알고리즘 분석의 자료가 될 때, 우리는 신성한 공간을 추출과 조작의 장소로 변형시킬 위험이 있다.

또 신앙생활에서 AI의 구현은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신자가 AI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지역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신자는 AI 지원 신앙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이나 고가의 스마트 기기가 없는 신자들은 AI 기반 신앙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는 AI를 통해 향상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영적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⁷⁴

요컨대, AI의 유익함 이면에는 심각한 한계와 위험이 존재한다. AI를 궁극적 지혜의 원천으로 착각하는 개념적 이상화의 위험이 있다. AI는 기독교 신앙의 관계적 본질인 체현된 현존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73 S.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2019), 233-242; P. Gharib, "AI and Spirituality: Embracing Technology in Faith Practices", ProfileTree, September 24, 2025, <https://profiletree.com/ai-and-spirituality/>.

74 Y. Waruwu, "Pendidikan Agama Kristen dalam Era AI Menggunakan Kecerdasan Buatan untuk Personalisasi Pembelajaran Spiritual", *Jurnal Abdiel* (2024), <https://doi.org/10.37368/ja.v8i2.786>.

AI의 환각 문제, 편향된 데이터, 신학적 부정확성은 영적 지도에서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내밀한 영적인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투의 위험도 있고,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영적 불평등을 만들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인식하며,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성경적 관점에서 AI 활용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 AI 사용을 위한 방향 제시

지금까지 논의를 기초로 이제 AI 사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AI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하려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AI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기독교 신학 공동체는 AI가 인간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⁷⁵ 이를 위해 AI의 강점(활용)과 약점(한계 및 위험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⁷⁶ 목회자와 기독교 교육자들은 신자들이 유익한 기술을 사려 깊게 통합하면서 진정한 영적 훈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⁷⁷ 이것은 영적 맥락에서 AI 사용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

75 박완석, “인공지능 시대, 기술의 주체화와 인간의 객체화: 인간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기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5 (2022), 201-238;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 예배하는 인간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모색”, 『신학과실천』 81 (2022. 7), 619-643.

76 김경식, 윗글, 441-483; 김은혜, 윗글, 173-204; Przygoda, et al., 윗글.

77 A. Borgmann,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A Philosophical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유지하고, 디지털 매개 없이 묵상을 위한 공간을 보존하며, AI 도구가 인간의 영적 동반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⁷⁸

둘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spiritual discernment)을 가지고 기술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⁷⁹ AI 시대의 도래로 ‘침몰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사라지지 못할’ 새로운 문해력이 촉구되며,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 활용을 넘어 기독교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기독교적 가치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⁸⁰ 이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서 창의·융합적 그리스도인 양육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⁸¹ 이것은 신자들에게 AI 생성 콘텐츠와 진정한 영적 통찰의 차이를 인식하고, 디지털 도구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기술적 관여로부터 심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설교자는 AI 주석의 도움을 받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AI는 방대한 성경 주석을 학습해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설교자는 성령님과 의 교통을 통해 합리성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⁸² 창조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십계명에 성문화된 구약의 안식일 원리는 AI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96-199.

- 78 송윤희,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재고”, 『복음과 실천』 68 (2021), 97-130;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283-312; 손정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독교교육 연구동향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79 (2023), 67-98; 김효숙, “인간-생성형 인공지능의 협력: 예비 종교교사의 학습 경험 탐색”, 『장신논단』 56/3 (2024), 327-354; 박완석, 윗글, 201-238; 문성일, 윗글, 64-98.
- 79 오경환, 윗글 (2022. 7), 619-643.
- 80 김창주, “인공지능과 구약성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욥 21:21)”, 『구약논단』 28/4 (2022), 187-214; 김경식, 윗글, 441-483.
- 81 남선우, 윗글, 123-156.
- 82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신학과 세계』 99 (2020), 282-315; 이성민은 진정한 통찰의 원천으로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술과의 관여와 거리둠의 리듬을 확립하기 위한 지혜를 제공한다. 안식일은 인간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기술이든 아니든 모든 시스템의 전체주의적 주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⁸³

셋째, 기독교 단체들은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I에 기초한 채용 시스템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사회계층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⁸⁴ AI의 딥러닝 기술은 개발자나 주 사용자 계층이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 인종, 성, 연령, 지역 등 개인에 대한 편향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차별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⁸⁵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앙 상담 AI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신앙 표현을 보장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⁸⁶

예언자적 전통에서 과부, 고아,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디지털 격차에 놓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AI 기술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AI 시스템이 이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교회가 맡아야 한다.⁸⁷ 교회는 기술 전문가와 윤리학자들과 협력해, AI를 단순한 참여율 증대나 행정 효율성 향상 도구로만 쓰지 말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 내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83 Brueggemann, *윇글* (2014), 45-48.

84 Sil Yoon, "Imago Dei and Human Dignity: Restoring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신학사상」* 202 (2023), 215-248; 김경식, *윇글*, 441-483.

85 문성일, *윇글*, 64-98.

86 Yoon, "Imago Dei and Human Dignity: Restoring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15-248; 문성일, *윇글*, 64-98; 송용섭, "인공지능 상담의 윤리적 이슈와 대안", *「상담학연구」* 23/5 (2022), 89-112.

87 박완석, *윇글*, 201-238.

변영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향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과학 공동체와 공공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AI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담론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장에 개입하여 기독교적 입장의 공헌을 해야 할 것이다.⁸⁸ 이처럼 기독교 단체가 AI 윤리 문제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공정성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⁸⁹

넷째, 목회자들과 기독교 상담자들은 상담과 영적 지도에 AI를 활용할 때 그 이점과 위험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AI 기반 목회 상담 서비스의 경우에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나 모바일 기반의 챗봇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될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목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을 지닌다. 또 긴박한 위기 상담의 경우나 목회 상담사의 도움을 대면하여 직접 받기 어려운 원거리의 물리적 환경에 내담자가 처해 있을 경우,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기초한 목회 상담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접속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⁹⁰

그러나 AI는 목회자나 인간 상담사의 깊은 공감이나 영적인 통찰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AI의 도움과 직접적인 대면 상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AI 상담사는 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AI의 공감은 진짜 공감

88 김은혜, *윗글* 173-204; 나영신, “인공지능의 판단능력에 대한 윤리적 고찰”, *「신학과 철학」* 38 (2021), 147-175.

89 박완석, *윗글*, 201-238; 이성민, *윗글*, 282-315; 김은혜, *윗글*, 173-204; 장재호, *윗글*, 257-283; 오경환, *윗글* (2022. 7), 619-643.

90 문성일, *윗글*, 64-98.

과는 다름을 알아야 한다. AI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AI와의 소통이 오히려 인간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⁹¹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하나님이 치유의 주체로 함께하신다는 점이 특징이다. AI 로봇이 상담자의 돌봄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내담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나 위로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⁹²

시편의 탄원시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난 애가 전통은 진정한 영적 성장이 고통과 슬픔, 혼란 같은 어려운 감정을 다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시 42, 51편; 애 3장).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겪는 슬픔과 회개의 복잡한 감정을 AI가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AI는 목회자를 대체할 수 없다. 정서적 공감이나 개인적 상담이나 영성 훈련 등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목회자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목회자는 AI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⁹³

다섯째, 신학교들은 미래 목회자들이 AI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신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신학교육에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구현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⁹⁴ 또한 기독교교육자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을 알고, 교육공학적

91 윗글, 64-98; 김경식, 윗글, 441-483.

92 문성일, 윗글, 64-98.

93 장재호, 윗글, 257-283.

94 손정위, 윗글, 67-98.

인 실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⁹⁵ 그리고 학생들에게 AI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이해시키고, AI가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은혜의 의미에 대해 던지는 신학적 질문들을 깊게 탐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⁹⁶ 요컨대 신학교육은 AI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기독교적 가치를 비평적으로 통합하여, 미래 목회자들이 AI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독자성과 책임 및 초월적 진리를 붙잡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⁹⁷

7. 나가는 말

본 연구는 ‘AI 시대에 교회는 어떤 신학적 기준으로 이 기술을 평가하고, 어떤 원리에 따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대해 구약 신학의 관점에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의 창조 교리는 AI 개발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창조적 능력의 표현으로 긍정하면서도(창 1:26-28), 바벨탑 사건(창 11:1-9)을 통해 기술적 교만의 위험을 경고한다. 둘째, 구약의 지혜 문헌은 참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됨을 일관되게 강조한다(잠 9:10). AI가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이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성경적 지혜가 아니다. 셋째, 구약의 우상숭배 비판(출 32장)은 AI에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 — 지혜, 이해, 영적 인도 — 을 부여하는 ‘개념적 우상화’의 위험을 경고한다. 이러한 신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교회의 책임

95 윗글.

96 김경식, 윗글, 441-483; 유경동, 윗글, 149-179; 손정위, 윗글, 67-98.

97 김경식, 윗글, 441-483; 김은혜, 윗글, 173-204.

있는 AI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AI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말씀 중심의 영적 분별력 함양, 목회 현장에서 AI의 보조적 역할 인식, 신학교육에서 AI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배양 등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기존 연구가 주로 조직신학적 또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AI를 다룬 반면, 구약 신학 — 창조 교리, 지혜 문학, 우상숭배 경교 — 을 중심 렌즈로 삼아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과 ‘위협’으로 보는 관점을 창조-지혜-우상이라는 통합적 신학 틀 안에서 균형 있게 다루었다.

본 연구는 구약 신학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신약 신학, 특히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의 관점에서 AI를 평가하는 작업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로는 로고스 신학(요 1장)과 성령론의 관점에서 AI의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 ‘AI는 학습된 산물인가, 학습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구약의 생명 이해(네페쉬, 루아흐)와 연결하여 탐구하는 연구, 그리고 AGI(범용인공지능)가 제기할 신학적 도전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AI 시대에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공동체적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형성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 9:10)이라는 구약의 선언은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서서, 시대의 도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활용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호, “AI를 보는 기독교 윤리의 5가지 가치와 3가지 원칙”, 「한국기독교윤리연구회 (KICE)」, 2025 컨퍼런스 특집1,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622> (2025년 9월 9일 접속).

www.kci.go.kr

- 김경식, “인공지능은 정말로 ‘인간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0 (2023), 441-483.
-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283-312.
-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 (2016), 35-60.
- 김은혜, “인공지능의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기독교 인공지능 윤리의 가치와 방향”, 「장신논단」 56/4 (2024), 173-204.
- 김창주, “인공지능과 구약성서: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욥 21:21)”, 「구약논단」 28/4 (2022), 187-214.
- 김효숙, “인간-생성형 인공지능의 협력: 예비 종교교사의 학습 경험 탐색”, 「장신논단」 56/3 (2024), 327-354.
- 나영신, “인공지능의 판단능력에 대한 윤리적 고찰”, 「신학과 철학」 38 (2021), 147-175.
- 남신우,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75 (2023), 123-156.
- 문성일, “인공지능목회상담의 출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과제”, 「목회와 상담」 43 (2024), 64-98.
- 박완석, “인공지능시대, 기술의 주체화와 인간의 객체화: 인간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기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5 (2022), 201-238.
- 박종환, “Imago Dei, Imago AI: 강인공지능(AGI)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4 (2024), 275-312.
- 손정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독교교육 연구동향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79 (2023), 67-98.
- 송경호, “교회에 실망한 이들, ‘부족해도 죄 짓지 않는’ AI 설교자 택할 것”,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5347> (2024년 12월 6일 접속).
- 송용섭, “인공지능 상담의 윤리적 이슈와 대안”, 「상담학연구」 23/5 (2022), 89-112.
- 송윤희,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재고”, 「복음과 실천」 68 (2021), 97-130.
-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 예배하는 인간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모색”, 「신학과 실천」 81 (2022. 7), 619-643.
- _____, “인공지능(A.I.)은 현대판 바벨탑인가 선교의 도구인가: 교회(목회자)의 대

- 응 방향 연구”, 「복음과 실천」 70 (2022. 1.), 251-283.
- 유경동, “인공지능과 기독교윤리: 신학과 인공지능 연구와의 대화”, 「신학과 세계」 95 (2019), 149-179.
-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신학과 세계」 99 (2020), 282-315.
-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 (2023), 257-283.
- Aaron, C., “‘God Is Using It’: AI Expediting Bible Translation---Less Than 1,000 Languages Now Need Translating”, *CBN*, January 17, 2025, <https://cbn.com/news/world/god-using-it-ai-expediting-bible-translation-less-1000-languages-now-need-translating>.
- Barger, D., “How AI Assists in Global Bible Translation”, *TGC U.S Edition*, February 26, 2024,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ai-bible-translation/>.
- Bartholomew, C. G.,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Borgmann, A.,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A Philosophical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Brueggemann, W., *Genesis*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_____,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 Burlacu, M., “Knowledge, Conscience, Consciousness, Awareness, or About the Presence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Spiritual Life and Their Challenges”, *Studia Universitatis Babeş-Bolyai Theologia* (2024), <https://doi.org/10.24193/subbto.2024.1.03>.
- Citiman, “인공지능 서비스로 목회사역과 전도사역을 돕는다”, *Citi*, February 28, 2024, <https://citi.or.kr/51?category=1239525> (접속일 2025년 12월 4일).
- Clifford, R. J., *Proverb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Clivaz, C. and Allen, G., “The Digital Humanities in Biblical Studies and Theology”, *Open Theology* (2019) 5/1, 461-465.
- Dorobantu, M.,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esting Ground for Key Theological Questions”,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57/4 (2022), 985-1002.
- Dreyfus, H. L.,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Cambridge, MA: MIT Press, 1992).

- Fox, M. V.,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Yale Bible 18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1).
- Gharib, P., "AI and Spirituality: Embracing Technology in Faith Practices", *ProfileTree*, September 24, 2025, <https://profiletree.com/ai-and-spirituality/>.
- Goldingay, J., *Exodus and Leviticus for Everyon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Grenz, S. J.,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Herzfeld, N.,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Hoekema, A.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 Howard, B., "7 Ways AI Can Assist Pastors", *Center for Healthy Churches*, October 30, 2023, <https://chchurches.org/7-ways-ai-can-assist-pastors/>.
- Jahng, K., "How AI Can Transform Discipleship in Your Church", *Exponential*, January 8, 2024, <https://exponential.org/how-ai-can-transform-discipleship-in-your-church/>.
- Kenny, J., "The Church AI Revolution: Why 91% of Pastors Are Betting on Big Tech (And You Should Too) in 2025", *Exponential*, January 28, 2025, <https://exponential.org/the-church-ai-revolution-why-91-of-pastors-are-betting-on-big-tech-and-you-should-too-in-2025/>.
- Kidner, D.,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4).
- Kim, E., *Leveraging ChatGPT for Deeper Bible Study: The Art of Crafting AI Prompts for Biblical Insight* (Cheonan: Fountain of Life, 2024).
- Kurpiewski, P., "Does Artificial Intelligence Believe in God? What Does AI Really Say about Religion and Spirituality?", *CG Wisdom*, July 10, 2025, <https://cgwisdom.com/blog/does-artificial-intelligence-believe-in-god-what-does-ai-really-say-about-religion-and-spirituality.html>.
- Longman III, T., *The Book of Ecclesiast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_____,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Mclaren, L., "How AI Can Impact the Future of Discipleship", *The Lead Pastor*, February 11, 2025, <https://theleadpastor.com/ministry-life/ai-and-discipleship/>.
- Middleton, J. R.,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5).
- Mouw, R. J., *Called to Holy Worldline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Murphy, R. E., *Proverbs* (WBC 22;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12).
- Natalia, D. et al., eds., "Empowering Christian Educ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and Inter-Religious Studies (ICC-IRS 2024)*,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932, https://doi.org/10.2991/978-2-38476-424-2_35.
- Przygoda, W.,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Challenge for Human Understanding, Christian Education, and the Pastoral Activity of the Churches", *Religions* 16 (2025), 948, <https://doi.org/10.3390/rel16080948>.
- Saragih, D., "The Priesthood of All Sentients? The Eclipse of Transcendence in an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Veritas* (2023), <https://doi.org/10.36421/veritas.v22i2.597>.
- Simango, D., "The Imago Dei (Gen 1:26-27): A History of Interpretation from Philo to the Present", *Studia Historiae Ecclesiasticae* 42/1 (2016), <https://doi.org/10.17159/2412-4265/2016/1065>.
- Son of God AI Editorial Team, "AI Christian Counseling: When Technology Meets Pastoral Care", *Son of God AI*, January 23, 2025, <https://sonofgodai.com/blog/ai-christian-counseling-when-technology-meets-pastoral-care>.
- Stuart, D. K., *Exodus* (NAC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 SWIM, "AI 기술을 활용한 복음 전파", <https://www.chatgptmission.com/mission-training-center/ai-%EA%B8%B0%EC%88%A0%EC%9D%84-%ED%99%9C%EC%9A%A9%ED%95%9C-%EB%B3%B5%EC%9D%8C-%EC%A0%84%ED%8C%8C>.
- _____, "선교에 AI챗봇 등 최신 기술 활용 사례", <https://www.chatgptmission.com/mission-training-center/%EC%84%A0%EA%B5%90%EC%97%90-ai% C2%B7%EC%B1%97%EB%B4%87-%EB%93%B1-%EC%B5%9C%EC%8B%A0-%EA%B8%B0%EC%88%A0-%ED%99%9C%EC%9A%A9-%EC%82%AC%EB%A1%80>.
- Treier, D. J., *Proverbs and Ecclesiastes* (Brazos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 Turkle, S., *Reclaiming Conversation: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New York: Penguin Press, 2015).
- von Rad, G.,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H. Marks, rev. ed.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 _____, *Wisdom in Israel*, trans. James D. Marti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 Wales, J., "The Image and the Idol: A Theological Reflection on AI Bias," *Church Life Journal, University of Notre Dame*, 17 March 2019, <https://churchlifejournal.nd.edu/articles/the-image-and-the-idol-a-theological-reflection-on-ai-bias/>. (접속일 2025년 12월 4일).
- Waltke, B.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4).
- Waruwu, Y., "Pendidikan Agama Kristen dalam Era AI Menggunakan Kecerdasan Buatan untuk Personalisasi Pembelajaran Spiritual", *Jurnal Abdiel* (2024), <https://doi.org/10.37368/ja.v8i2.786>.
- Waters, B.,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Burlington, VT: Ashgate, 2006).
- Wenham, G. J., *Genesis 1-15* (WBC 1; Waco, TX: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4).
- Wolters, A. M.,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5).
- Yoon, S., "Imago Dei and Human Dignity: Restoring Democra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신학사상」 202 (2023), 215-248.
- York, M., "New AI Tool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Converts Information into Easy Read Formats", *Assistive Technology*, June 2, 2025, <https://attoday.co.uk/new-ai-tool-for-people-with-learning-disabilities-converts-information-into-easy-read-formats/>.
- Zuboff, S.,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2019).

검색어

인공지능(AI), 기독교 영성, 구약 신학, 디지털 제자도, 기술 윤리

www.kci.go.k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ristian Spirituality: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Directions

Jinkyu Kim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and proposes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use of AI in the church. As AI technology rapidly advances, unprecedented theological challenges have emerged for Christian ministry, including pastoral counseling, sermon preparation, Bible study, and theological education. However, existing discussions tend to approach AI either as a mere tool to be utilized or as a threat to be rejected, representing a binary approach that lacks a comprehensive theological framework.

Using a theological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this research examines three key dimensions of Old Testament theology. First, creation doctrine (Genesis 1-2, 11) establishes the ontological position of AI: while AI development can be affirmed as an expression of the cultural mandate given to humans created in God's image (*imago Dei*), the Tower of Babel narrative warns against technological hubris. Second, wisdom literature (Proverbs, Ecclesiastes) distinguishes between the information AI provides and true biblical wisdom: authentic wisdom begins with "the fear of the LORD" (Proverbs 9:10), which cannot be programmed into algorithms. Third, the golden calf incident (Exodus 32) warns against

www.kci.go.kr

“conceptual idolatry” — attributing to AI the attributes that belong only to God, such as wisdom, understanding, and spiritual guidance.

The findings reveal that AI presents both significant opportunities and inherent limitations for the church. AI can democratize access to biblical resources, accelerate Bible translation, support personalized spiritual formation, and extend pastoral care. However, AI threatens the relational essence of Christian spirituality through its inability to provide embodied presence, poses risks of theological distortion and hallucination, raises privacy concerns regarding intimate spiritual data, and may create new forms of spiritual inequality through the digital divid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church: developing biblical understanding of AI’s strengths and limitations, cultivating Word-centered spiritual discernment, recognizing AI’s supplementary role in pastoral ministry, and integrating AI literacy with critical thinking in theological education. The core thesis maintains that AI, while useful as a tool for the cultural mandate within creation order, cannot replace true wisdom that begins with the fear of the LORD, and becomes a conceptual idol when mistaken as the ultimate source of wisdom. The church must exercise theological discernment rather than mere technical utility when engaging with AI technology.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hristian Spirituality, Old Testament Theology, Digital Discipleship, Technology Ethics

투고일 :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 2025년 11월 05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12월 05일

www.kci.go.kr